문재평·박광구·김영화 광주미협 회장 '3파전'

기업 메세나·복지 개선 등 공약
22일 무등산관광호텔서 선출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

문재평

박광구

김영화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이하 광주미협) 선거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광주미술을 이끌 신임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미협은 내달 28일 현 곽수봉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22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제12대 광주미협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등록 결과 문재평(60·서예), 박광구(60·조각), 김영화(64·서양화) 작가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문재평 후보는 '다 같이 함께 하는 미협! 힘찬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술인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중점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회원 및 여성·청년·원로작가를 대상으로 미술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관에 충실한 협회 운영을 통해 미술대전 등 협회 행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의 꾸준한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폭넓은 인맥을 활용한 메세나 운동 및 명예회원제 확대 추진을 통한 후원금 조성 등 수익 구조 마련과 광주시민 1,000인 미술품 갖기, 올해의 청년작가상 제정, 예술의 거리 활성화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술시장 저변 확대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기호 2번 박광구 후보는 "현재로서는 협회의 위상 복원과 미래를 향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행정력 강화를 통해 추락한 협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광주미협전 개최를 통한 지역 작가들의 창작 지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업 메세나 박차를 위해 이미 영무토건에서 1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광주미협전을 개최해 매년 우수작가 25명을 선정, 1인 당 100만 원 등 4년간 총 1억 원을 창작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공미술프로젝트 확대, 기존 비엔날레 전시장 활용, 온라인 작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우며 부족한 지역 전시 공간 확장과 시장 확대를 통한 작가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한번 출사표를 낸 기호 3번 김영화 후보는 '봉사와 경험으로 준비된 김영화'를 슬로건으로 "사무 차장 등의 경험을 살려 회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에 신경쓰겠다"며 "회원들 뿐만 아니라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중 아트페어 형식의 정기 전람회를 열고, 미술은행 설립을 통한 작품 렌탈 등 작품을 통한 소통 저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대표 문화공간의 문턱을 낮춰 지역 미술인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7년 광주국제아트페어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부실 정산 및 수익금 고의 누락 등의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한 공약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내외 미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어떤 방식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할 점이다. 후보들이 '예술의 거리 및 랜드마크 구축', '공공미술프로젝트 확대 및 작품 판매 시스템 구축', '정기전람회 및 미술은행 설립' 등 공약을 통해 지역 미술의 저변 확장 및 광주미협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편, 이번 미협회장 선거 투표권은 지난해 12월 21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주어지며 13일 현재 유권자는 1,200여 명이다. 당선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제12대 광주미협 회장으로서 협회를 이끌게 된다. 임기는 4년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강사 모집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교육 강사'를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기동안 진행되는 학교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상설미디어교육(영상, 라디오, 사진, 드론, 크리에이터 등), TV·라디오 제작과정과 직업 등을 체험하는 체험미디어교육 등 3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교육 전반을 이끌어가는 '일반강사'와 이를 지원하는 '보조강사',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체험강사' 등 총 3개 분야의 강사를 모집한다.

일반강사는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 경력, 또는 언론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체험강사는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해당교육과 관련된 전문 기술 및 지식을 갖춘 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조강사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미디어 관련 분야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만 15~34세의 청년지원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가산점이 부여된다.

/오지현 기자

새해 희망과 온기 전한다
별밤 미술관 주제별 전시
내달 2일까지 첨단 등 5곳

박희정 작 '꿈꾸는 동반2'

예술로 저녁 시간을 물들이는 광산구 별밤 미술관이 임인년 새해에도 다양한 주제를 담은 전시로 시민을 만난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5개 별밤 미술관이 오는 2월2일까지 주제별 전시를 선보인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전시인 만큼 희망과 행복, 사람 사는 풍경이 주는 따스함 등이 담긴 주제로 구성됐다.

별밤 미술관 in 첨단에선 꽃이 된 달을 통해 행복 가득한 시간을 기원하는 김성대 작가의 '달이 꽃이어라' 전시가 펼쳐진다. 화면 3분의 2정도의 분홍빛 달의 실루엣과 그 내부에서 좌우로 퍼지는 듯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고향의 꽃들의 움직임과 화면 하단의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수완 별밤 미술관은 박희정 작가의 '바나나 바나나' 전시를 연다. 어릴적 품은 바나나의 달달한 행복감, 노란색의 희망과 따뜻함을 표현한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바나나를 희망이라고 부르며 그 형태가 조형적으로 훌륭하다고 여기는 작가의 작고 큰 희망 일기를 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선운지구 근린공원에 있는 별밤 미술관은 사람들의 흔적이 축적된 골목길의 따듯함, 편안함을 표현한 노여운 작가의 '기억:풍경' 전이 진행된다.

신창 미술관에서는 배일섭 작가가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를' 이란 주제로 시대정신을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운남 별밤 미술관에서는 서영실 작가의 '사소한 풍경'을 주제로 문명이 들어선 이후 번성하고 쇠락한 도심의 모습을 조명한 작품이 전시된다.

별밤 미술관 전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윤영봉 기자

국립고궁박물관서 가장 오래된 현판 '의열사기'

'조선왕실의 현판Ⅱ' 공개

의열사기 현판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국립고궁박물관은 서애 류성룡이 짓고 석봉 한호가 쓴 '의열사기 현판'이 소장 현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고궁박물관이 이날 공개한 '조선왕실의 현판 Ⅱ' 도록에 따르면 의열사기 현판은 류성룡이 1581년 4월에 지은 부여 의열사(義烈祠) 기문(記文·기록한 글)을 이듬해 새긴 자료다. 크기는 가로 150㎝, 세로 36㎝다.

류성룡의 벗인 홍가신이 1575년 부여 현령으로 부임해 백제 의자왕 시기 충신인 성충·흥수·계백과 고려 공민왕 때 신하 이존오를 모시기 위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판 뒤쪽에는 '만력 10년 임오년 2월에 걸다. 생원 한호가 썼다'는 글이 있다.

2020년 발간한 '조선왕실의 현판 Ⅰ' 후속편인 이번 도록에는 종묘, 사직단, 사묘(私廟), 능원묘(陵園墓), 별궁(別宮), 행궁(行宮), 궐외각사(闕外各司) 등에 걸었던 현판 288점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도록 뒤쪽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문양과 특징', '조선왕실 현판 안료 분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사롱의 직물 조사' 등 논고 세 편을 실었다. 사롱은 현판을 덮었던 직물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숙종 31년인 1705년 종묘 정전과 영녕전에 있던 물품을 정비하면서 발간한 책 '금보개조도감의궤'를 번역한 '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도 펴냈다.

/연합뉴스

커버스토리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 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AI · 그린 등 호남권 혁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서남권 대표 전시장 우뚝내부 직원과 소통…
민 · 관 · 학 · 연 합심 전략적 마케팅지역민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겠다

[특별 초대석] 김원이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 · 민주교육 확대고교학점제 확대
2025년 안착 · 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채 시엘병원장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천

[이달의 도서] 한강 作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 · 항저우아시안게임 · 카타르월드컵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천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간과 매가 함께하는 합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쳐

안수기의 건강백세

지역특집 1004섬 공원화 사업
사계절 꽃피는 흘링섬 '신안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와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메니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 · 신뢰 · 친절 · 맛 · 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

■ 구독문의 : 062) 720-1014 ■ 기사제보 : jnreviews@hanmail.net
2022년 1월호 | 제74호 | 값 10,000원 | 1년 정기구독료 100,000원